



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빅리그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데뷔 첫 안타와 멀티히트, 첫 타점과 첫 득점, 2호 도루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.

AP=연합뉴스

그라운드 난입·선수 밀치고 고함 이정효 광주 감독 '어린이날 추태'

김천전 오후성에 도 넘은 질책 동심 위한 잔치 분위기에 찬물



이정효(왼쪽) 광주 감독이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와 오후성을 질책하며 밀치고 있다. 쿠방 플레이 중계 화면 캡처

때로는 지나친 열정이 독이 될 때도 있다. 특목 투는 언행과 전술로 프로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 K리그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5일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추태에 가까웠다.

이 감독의 '불편한 행동'은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광주와 김천 상무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왔다.

광주는 전반 15분 오후성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전반전을 1-0으로 마무리했다.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광주 벤치에서 이정효 감독이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로 뛰어 들었다.

이 감독은 오후성을 향해 달려들며 '이리 오라는 손짓과 함께 고함을 쳤고, 주장 이강현이 제지했지만 뿌리치더니 결국 오후성의 왼팔을 잡고 불만을 토로한 뒤 양

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행동이 이어졌다. 이 감독이 오후성을 그라운드에서 혼내는 장면은 TV 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됐고,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어린이 팬들도 현장을 목격했다.

지도자로서 선수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곧바로 교체하거나 리커름에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. 하지만 팬들이 지켜보는 그라운드에서 사실상 폭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선수에게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.

빅리그 첫 선발... 펄펄 난 김혜성

‘혜성 특급’ 김혜성(26·로스앤젤레스 다저스)이 빅리그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멀티히트(한 경기 2안타 이상)를 비롯해 타점과 득점을 수확하고 도루에 성공하는 등 맹활약했다.

김혜성은 6일(한국 시간)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(MLB)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빅리그 데뷔 첫 안타를 포함,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.

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던 김혜성은 지난 4일 빅리그에 합류한 뒤 그날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경기에서 9회 대수비로 출전해 데뷔전을 치렀다.

그리고 5일 애틀랜타전에선 9회 초 대주자로 나서 도루에 성공했다.

두 경기에서 타석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한



말린스전 9번 타자 2루수 출전
2안타에 타점득점도루 맹활약
묘기같은 글로브 투스 호수비도

김혜성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.

김혜성은 1-0으로 앞선 3회 초 공격에서 선두 타자로 MLB 첫 타석에 섰다.

그는 2022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한 마이애미 우완 선발 투수 산디 알칸타라를 상대했다.

김혜성은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가운데 몰린 시속 159.6km 싱킹 패스트볼을 공략했으나 우익수 뜬 공으로 아웃됐다.

데뷔 첫 안타는 3-0으로 앞선 5회 초 공격에서 나왔다.

선두 타자로 나온 김혜성은 볼카운트 1

볼 1스트라이크에서 알칸타라의 바깥쪽 155.5km 직구를 밀어 쳐 깨끗한 좌전 안타를 쳤다.

출루한 김혜성은 후속 타자 오타니 쇼헤이 타석 때 2루 도루에 성공했고, 오타니의 우월 투런 홈런으로 홈을 밟았다.

시즌 9번째 아치를 그린 오타니는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더그아웃에 먼저 들어와 함께 득점한 김혜성의 헬멧을 두드리며 그의 빅리그 첫 안타를 축하하고 자신의 일마냥 기뻐했다. 둘은 같은 소속사(CAA)에서 한술밥을 먹는다.

김혜성은 첫 안타에 만족하지 않았다.

5-0으로 앞선 6회 초 공격에서 두 번째 안타이자 MLB 데뷔 첫 적시타를 날렸다.

그는 2사 1, 2루에서 오른손 불펜 투수 타일러 윌킵스를 상대로 중견수 앞에 푹 떨어지는 안타를 쳤다.

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낮은 140.2km 체인지업을 견어냈다.

타구는 유격수를 살짝 넘어가는 행운

의 안타로 이어졌고, 그 사이 2루 주자 안디 파헤스는 있는 힘을 다해 홈으로 내달렸다.

김혜성은 7-1로 앞선 8회 초 1사 3루 기회에선 마이애미 세 번째 투수인 우완 조지 소리아노를 상대로 1루 땅볼로 물러났다.

김혜성은 수비에서도 빛났다.

그는 7-4로 앞선 8회 말 상대 팀 로니 시몬의 느린 땅볼을 달려 나와 잡아낸 뒤 글러브 투스로 송구했다.

오른손으로 글러브 안에 있는 공을 빼내지 않고, 왼손 손목의 스냅으로 토스하는 모습이 묘기에 가까웠다.

그러나 이 공을 다저스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이 잡지 못해 아웃 카운트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.

이 플레이는 프리먼의 실책으로 기록됐다.

다저스는 김혜성의 공수 맹활약과 오타니, 프리먼의 홈런 두 방 등을 앞세워 마이애미를 7-4로 꺾었다.

스카이드에일리·연합뉴스

LPGA 첫 승 유해란, 2연승 사냥 나선다

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시즌 첫 승을 일군 유해란(사진)이 연속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.

유해란은 9일(한국 시간)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(파72-6690야드)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(총 상금 300만 달러)에 출전한다.

유해란의 기세는 남다르다. 그는 5일에 끝난 신설 대회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1~4라운드 내내

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.

자신의 최다 언더파 기록인 26언더파 262타로 공동 2위 에스터 헨젤라이트(독일), 인튀닝(중국)을 5타 차로 제쳤고, 2~4라운드에선 3일 연속 이글을 잡는 등 환상적인 샷 감각을 선보이기도 했다.

올 시즌 페이스 자체도 좋다. 그는 올해 출전한 LPGA 투어 8개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모두 20위권 내의 안정적인 성적을 거뒀다.

지난달엔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는 등 맹활약하다가 공동 6위를 기록했다.





Inhancer Plus[™]
관절영양제의 혁명
인한서 플러스

글루코사민 + 콘드로이틴 + MSM + 브로멜라인 + 레시틴

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

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!


